

연중 내리 덩기만 한 스리랑카에서는 이맘 때의 한국이 더욱 그립다



정연주
Winnie-ji@hanmail.net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졸업

연중 내리 덩기만 한 스리랑카에서는 이맘 때의 한국이 더욱 그립다. 혹독한 추위라도 나고 자란 곳이 그 곳이고, 왠지 무더운 연말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이다.

스리랑카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의 사회 첫 걸음이다. 뒤늦게 학교를 떠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함께한 문헌정보학의 현장을 의미있게 체험해보고 싶다는 거창한 포부가 생겼기 때문에 선택한 길이었다.

선발과 교육과정을 거쳐 2006년 5월 KOICA 한국해외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도서관에 파견되었고, Assistant Librarian으로 일하고 있다. 켈라니아대학교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외곽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이곳에는 스리랑카 유일의 한국어과가 설립되어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 체육교육, 사서 분야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사서 파견의 목적은 도서관 웹사이트 개발, 도서관 관리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이용자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활용 등에 있었다. 그리고 사서교육과 켈라니아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환경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내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나의 활동과 우리나라 정보환경에 대해서 알리는 자랑스러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보이는 관심은 대단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기



첫 업무성과물인 스리랑카 켈라니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록원,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의 기관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던 “2007 유네스코 스리랑카 기록유산 보존 훈련워크숍”은 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유감없이 느끼게 해주었다. 이 훈련 워크숍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아시아 기록유산 보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고, 지난해 몽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워크숍이 진행되기 몇 달 전, 사전조사 차 방문하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기록원 분들의 켈라니아 대학도서관과 스리랑카 국립도서관 방문을 도와드린 인연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장 진행 업무를 함께 하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간의 이해와 양 국가기관들의 견조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나라 기록보존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현장실습 등을 통해 스리랑카 사서, 기록보존 실무진들이 교육받는 뜻깊은 현장에 함께 한 것이다. 사서로서,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보다 더 큰 뿌듯함을 없을 것이다. 그분들의 노력이 스리랑카에서 새로운 보존기술과 환경을 위한 자극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스리랑카에서의 생활이 마냥 수월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스리랑카의 사회기반 시설과 정보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파견기관의 수준을 정의내리고 그에 적절한 사업내용을 구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이용자교육 측면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켈라니아대학교는 아직까지도 목록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별 전자저널 이용도 함께 교육해야 했다. 따라서 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효율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든 작업이었다.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의 수정작업이 필요했던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웹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의견충돌도 다반사였다.



2006년 6월 스리랑카 현지적응훈련 중인 한국해외봉사단 동기들. 현재 12명 동기 중 8명의 동기가 남아 스리랑카에서 각자의 전문분야로 봉사하고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진을 실었다고 화내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활동을 계속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부족함도 한몫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실무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기보다 보조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때에는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또한 나의 언어 실력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싱할라족이 사용하는 싱할라가 제 1공용어이지만 수도인 콜롬보와 그 근교에 영어 사용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수도 근교에 파견된 단원들에게 있어서는 현지어인 싱할라 못지 않게 영어도 주요한 의사

소통언어이다. 싱할라를 사용하면 기초생활이 편해지고 더불어 영어를 사용하면 생활이 풍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몇 달 동안 현지어를 교육받았지만, 당장 업무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에서 좀 더 편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보니 기본적인 것 외에 현지어 습득이 어려웠다. 스리랑카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데, 사서선생님들 대부분이 석사 재학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그분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하고 어색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애로점들 중 하나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환경, 음식,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조차 단번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생활이나 업무 측면에서 겪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스리랑카에는 민족간의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어 있고 심심치 않게 테러도 일어난다. 근래에도 두 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다. 비단 테러가 일어난 후 반짝 밀려드는 긴장감일지라도, 그리고 외국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해도, 일상생활을 할 때 상당한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2007 유네스코 스리랑카 기록유산 보존 훈련워크숍"에서 우리나라 참석자들과 스리랑카 기관장들과 기념촬영.

그리고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과제였던 인식의 부재가 이곳에도 있었다. 도서관이라는 작은 정보환경, 사서라는 전문적 위치는 못 사람들의 부족하고, 종종 그릇되기까지 한 인식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가 있다. 사서의 역할에 의구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의 활동을 이해시켜야 하고 설명해야 하는 일은 자주 겪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좌절감마저 들었다. 그때마다 내가 택한 해결책은 문헌정보학개론 시간을 방불케 할만한 준비된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스리랑카와 한국의 소통, 조금 더 바란다면 스리랑카와 세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싶었다. 쌍방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어려움 없이, 오해 없이 통하도록 돕는 역할 말이다. 이러한 바람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나의 거창한 포부와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준 힘이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했던 모습에 아쉬운 맘뿐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다독거리고 이곳의 생활도 슬슬 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2007 유네스코 스리랑카 기록유산 보존 훈련워크숍"에서 발표자로 준비중. 가운데 스리랑카 전통의상 사리를 입으신 여사분이 스리랑카 국가기록원장님. 맨오른쪽은 국가기록원 최찬호 박사님.



직접 이용자교육 중이신 켈라니아대학교 Jayatissa도서관장님.

아침마다 나는 최면효과가 있는 켈라니아대학교 Jayatissa도서관장님의 아침인사를 받는다.

“좋은 아침! Miss Yeon, 행복한가요?”

그런 인사 뒤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모두 제쳐두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물론이죠. 행복합니다.”

한바탕 소란스러운 아침인사가 끝나고 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다. ☺